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백련사에서 밤중에 앉아 회포를 쓰다

白蓮寺夜坐書懷

고요한 절 스님은 선전에 들고
개인 산 달빛은 더욱 곱구나.
만달빛이 어지런 물에 불었고
어두운 새 깊은 가지 모여 있구나.
장하던 뜻 외로운 검만 남았고
궁한 근심 단가를 불러보노라.
서울에는 형님과 아우 있으이니
어찌들 지내는지 소식 물리라.

院靜僧初定
山晴月更多
疎螢依亂草
暗鳥集深柯
壯志餘孤劍
窮愁且短歌
京華有兄弟
消息定如何

영사

詠史

천리(威里)엔 새로운 귀인(貴人)이 많아 威里多新貴
붉은 대문 대궐을 에워쌌다네. 朱門擁紫微
노래와 풍악 소리 잔치 일 삼고 歌鐘事遊讌
가벼운 갖옷 살진 말을 다루는도다. 裘馬闊輕肥
다만 그저 영욕만을 논할 뿐이요 祇可論榮辱
수고로이 시비 따윈 묻지도 않네. 無勞問是非
어이 알리 싸대목 역은 집 아래 豈知蓬底底
추운 밤 우의(牛衣) 덮고 우는 이 있음을. 寒夜泣牛衣

‘자치통감 산책’ 출간

〈도서출판 삼화 발행, 총 432쪽, 값 18800원〉



저자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



본보에 연재되고 있는 ‘자치통감 이야기’를 권중달 교수가 다시 정리하여 지난 2010년 12월에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제호를 바꾸어

사로 반주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4·19, 5·16이후에는 경제제일주의와 건설제일주의가 사회의 통념이 되어서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장래를 생각하는 습관은 없어졌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권교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역사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책을 읽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나 흥미 위주의 내용이어서 실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역사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치통감을 우리말로 완역하고 나서 보다 더 대중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책으로 본보에 연재되었던 ‘자치통감 이야기’를 재정리하고 재구성하여 이 책을 낸 것이다. 자치통감 이야기는 원고의 제한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이 책에서는 전후 사정과 역사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의 역사가로서의 관점까지 더 붙여 넣었다고 하였다.

‘자치통감 산책’이라고 하였으며 다루고 있는 시대는 전국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대략 600여 년 동안 일어난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권중달 교수는 평소 역사지식이 없으면 사회가 경박해 진다고 생각하였으며, 경박한 사회는 견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닫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치유할 방법은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혼란상의 원인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우리의 현대사는 한말의 혼란과 일제식민지 시대, 그리고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스스로를 반성해보고 역

이 달의 시

새해를 맞아

아름답고 고운 단풍잎이
낙엽되어 떨어지면서
국화꽃 향기는 더욱 짙어가는데
어느새 솔바람 향기에 한 해가 가고
땃바람 소리에 새해를 맞으면
그윽한 매화 향기 풍기는 봄을 기다린다
난처럼 고고한 뜻을 지니면서
어렵고 고된 옛일은 모두가 추억으로 여기고
다가올 일들은 모두가 희망과 꿈이로다



권순채
(향토문화연구원)

이는 남성의 신양기(腎陽氣)를 보하고 심신의 허약을 보하고 피로를 개선하는 한약재들로 구성되어, 남성의 정력을 기를 수 있고 동시에 마음을 편하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장의 기력이 회복되면 자연스레 정자의 활동성이 강화되며, 남성의 발기력과 지속력이 강해지므로 임신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몸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다음에 계속)

■ 주요경력

- 慶熙大學校 韓醫學大學 卒業(16회)
- 延世大學校 特許法務大學院 修了(17회)
- 韓國日報·日刊스포츠 新聞 ‘健康칼럼’ 連載
- MBC TV 健康 特講
- 中國 沈陽醫科大學 中醫客座 研究員 委嘱
- 大韓民國 特許廳 健康機能性 製品 特許 獲得
- 權寧動韓醫院 院長(現)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9 시그마타워 308호
TEL : (02)417-4001(대)
FAX : (02)417-4013



우강 권이혁장관 에세이

보는 일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百聞不如一見)’는 말이 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든 틀림없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지나치다는 충고를 받기는 하지만, 나의 경우 TV를 보는 것이 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정이 다르지만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여가가 있으면 TV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교양 프로 뉴스 사극 드라마가 나의 단골 메뉴이다. 교양 프로부터는 새롭게 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다. 나이 든 사람들은 어린이가 같아진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나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대가 맞지 않아 시청할 기회가 드물기는 하지만 간혹 KBS의 어린이 과학시간 <신나라 과학나라>를 볼 때가 있는데 대단히 흥미가 있다. 상식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새삼스럽게 ‘옹거니’ 하고 일종할 때도 있다. 4월 18일(금) 저녁 5시에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이 주최한 제47회 ‘과학기술포럼’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던 그 포럼의 제목은 <일반국민의 과학 가깝게 하기: 새로운 대안>’이었다. 포럼이 끝난 후 이현구(李賢九) 원장으로부터 건배를 제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건배사에서 ‘김진현(金鎭玄)씨가 과거에 장관 때 ‘과학의 대중화 운동’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

고 나도 멤버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는데 별로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소개하고, “오늘 포럼의 제목이 ‘새로운 대안’이라고 되어 있어 새로운 대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포럼이 끝난 후 ‘새로운 대안’에 관하여 별로 얻은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어쨌든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로부터 새로운 이론 전개를 들은 것은 뜻깊었다.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KAST)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나가지’를 외치며 건배하자.”고 제의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도 TV의 ‘어린이 과학시간’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소개했고, 과학 대중화운동은 알기 쉽게 해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는 그날그날의 일들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까닭에 시청하는데, 지나치게 편파적인 뉴스에는 실망감이 든다. 사극드라마를 통해서도 올바른 국사를 파악하는 데 일조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시청하는 것이다. 역사 지식이 빈약한 나에게는 어디까지도 진실인지 파악하기 힘든 때가 많다. 우리나라의 명소나 외국의 명소를 방문하며 관람하는 것도 우리들의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이다. 웬만한 곳은 거의 가봤지만 아직도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Angkor Wat)’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Capetown)’은 방문하지 못했다. ‘앙코르 와트’와 ‘케이프타운’은 집사람과 함께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참고문헌도 마련했고 대체적

인 일정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2000년 5월에 집사람이 쓰러지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 캄보디아 북서부의 석조 유적인 ‘앙코르 와트’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이며 누구나 한번쯤은 방문할 만한 곳으로 알고 있다. ‘케이프타운’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입법부 소재지이다. 한때 나는 제약회사인 ‘녹십자’에서 근무했는데 허영섭(許永燮)회장의 친구인 스위스 사람 볼프 브란덴베르거(Wolf Brandenberger) 씨와 친구가 있었다. 그는 약품 중대업자이며 전 세계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업무이고 취미였다. 한번은 여러 도시 중 제일 매력적인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케이프타운’이라고 답했다. 구식건물과 신식건물이 공존하며 고대와 현대를 함께 나타내고 있는 점이 아름답다며 극찬을 했다. 그때부터 가고 싶은 곳으로 삼았던 것이다. 근래에는 다리가 약해져서 단체 여행단에 끌려가 가지 않는다. 집안 아이들과 함께 ‘앙코르 와트’나 ‘케이프타운’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기회를 잡기가 힘들다. 어쨌든 ‘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과정이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아가는 일,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는 일 등 하고 싶은 욕망은 크지만 막상 실현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나라의 관광지에는 문제가 많다. 첫째는 바가지요금이다. 관광지에서는 물가가 싸야 하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이다. 둘째로는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빈약한 사실이다. 한글만으로는 부족하며 한자와 영문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관광지는 조금만 손을 보면 매력을 끌 만한 곳이 많은데, 웬지 그렇지 못하다. 한 번 찾아온 외국 관광객들이 두 번 세 번 오고 싶어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관광의 명분은 사라진다.

역사기행

황산(黃山) 오르는 길에 역사를 만나보자



한춘 권오창

였다. 마침 저녁식사를 마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걸어서 구경하기로 하였다. 그곳은 관광명소로 되어 있다.

거리는 차량통행금지 구역이고 보도블럭은 옛날 화강석으로 깔려있다. 거리의 가로등은 조도가 낮아서 휘황찬란한 빛은 없고 어둡컴컴하여 분위기는 별로였으나 가게에는 밝은 형광등이 켜져 있어서 상품 고르기에 별 지장이 없었다. 그 거리는 청나라 때의 건축양식으로 목조건물로 2층 3층이 추가 되었으나 벽은 흰색이고 기와는 검은 기와이며 문짝은 목조로 조각한 나무 조각으로서 청나라 건축양식을 그대로 들여내고 있다. 큰 집안 대문에는 꼭 해태 석상이 문양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악귀를 물리치고 재복이 왕립한다는 소원의 상징물이 되고 있다.

이 거리의 주된 가게는 황산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여 버루를 만들고 조그마한 돌 장식물을 만들어 팔면서 지필묵이 쌓여 있다. 서도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도 짝들은 있다고 하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짝들은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황산에서 나는 돌로 버루를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곳의 돌로 버루를 만들어 값비싼 황산출생 버루라고 판다고 한다.

속소로 돌아오는 길에 일행인 이강식(李康植)회장과 우리나라 서울시간으로는 새벽1시가 넘었는데 아직 여기 시간으로는 밤 12시를 조금 넘은 시간이 되어

서 속소호텔 근방 술집에서 청도맥주 2권을 마셨는데 중국돈 80원을 지불하고 나왔다. 비싼 술값이었다. 그래서 호텔 내에 있는 매점에서 청도맥주를 사가지고 숙소에서 올라와서 마신 후 내일 황산등산을 위하여 깊은 잠에 빠졌다.

제일 아침에 깨었다. 아침 8시에 전세 버스에 오른다. 황산입구까지 가는 데는 1시간 30분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버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어제부터 뿌리던 빗줄기가 제법 줄어들었다.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황산은 1년 중 반년은 눈이 개가 끼고 비가 온다고 하니 아이들을 만나다 연중에도 그래도 비가 가장 적게 오는 달이 5월과 6월이라고 하니 이 시기를 택하였으나 오늘 등산하기 좋은 날은 잡치고 만 것이다. 황산의 연 평균 기온은 7-8℃라고 하니 오늘은 33℃를 가리킨다.

드디어 황산입구 주차장에 도착하여 외국인인 인원수 여권 등을 대조하여야 된다고 하여 그 절차를 모두 밟고 제차 검문소를 통과하니 황산 밑에 민가들이 많이 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니 알만하다.

우리는 황산등산의 여러 코스 가운데 비가 뿌리고 안개가 끼어서 100m 앞을 볼 수 없어서 운곡사계곡과 백이령까지만 갔다가 오기로 하였다. 운곡사 케이블카 탑승입구까지 가는 데는 제 2검문소를 거쳐야 한다. 그곳에서 케이블카 탑승입구까지는 승용차로 약 15분에서 20분 걸린다.

(다음호에 계속)

남성불임 임상치료 선구자



권영훈 원장

불임이란, 결혼해서 임신이 되어 보지 못한 상태로, 절대불임 이외에 치유가 가능한 상대불임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 한 후 만 3년 또는 5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의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임은 여자에게만 원인이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남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자. 한의학적으로 치료 가능하기 때문이다.

◆ 남성 불임증의 한방치료 = 한의학에서는 남성불임증의 원인으로, 기쇠(氣衰), 정청(精淸), 조설(早洩), 정한(精寒)을 지목한다. 즉, 발기가 잘되고 정자의 수가 충분해야 하며 조루의 증상이 없는 등 정자의 활동력이 정상적이어야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구조적 질환이나 기형과는 무관하여 한의학적으로 치료 가능하나, 한방에 자문(咨問)지체가 있는데,

- ▶ 한방으로 저출산 도움 된다
- ▶ 여성 불임의 밝은 소식
- ▶ 남성 불임 우려할 질환인가?
- ▶ 인공수정 누구나 필요한가?

탄생!! 프리미엄 소형세단 엑센트

현대자동차 CarMaster
(100-420)서울 중구 무학동 1번지(상민빌딩 1~2층)
신당지점 : (02)2253-2033
FAX: (02)2237-2595
과장 권赫先 (이천·북아공파, 36세)
011-222-6766

자연과 사람들 우리 (주)금송은 자연과 인간의 하나됨을 지향합니다

(주)금송조경
(주)금송환경
권정섭나무한방병원
www.gumsong.co.kr
代表理事 / 院長 權正燮

- ▲ 조경수권리전문
- ▲ 방재
- ▲ 방역
- ▲ 조경컨설팅
- ▲ 조경공사
- ▲ APT조경수 연간 관리전문
- ▲ 고시수목 소생 무료-금비-수목에 모든 것

서울사무소 TEL : 02)846-2922 안양사무소 TEL : 031)466-29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3-26(2층) H.P : 016-799-9455 FAX : 031)466-2923

- 특 허 -
● 고시수목소생제 제0527101호 ● 수목용비료 제0537094호 ● 수목용비료제조공법 제10-0582681호 ● 살충제 및 그 제조방법 제10-0582684호
● 권정섭 나무한방병원 제41-0145323호